

도청이전 기념 심포지엄

# 미래 100년, 충남의 발전전략

일시 2013. 6. 17(월) 13:30~17:00

장소 충남도청 문예회관

주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	<b>식전행사</b> <span style="float: right;">사회 : 김나은 아나운서</span> □ 부여군 충남국악단 공연 □ 충남 미래비전 홍보동영상 상영
14:00~14:20	<b>개회식</b> □ 개회사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 축 사
14:20~14:30	<b>기조강연</b> □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 비전”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14:30~15:30	<b>주제발표</b> □ 제 1 주제 :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길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 제 2 주제 :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 -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 제3주제 :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 -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
15:30~15:40	중간휴식
15:40~16:40	<b>대담</b> 진행 : 정순오 한남대학교 교수  <b>패널</b> □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 (가나다 순)
16:40~17:00	<b>질의응답 및 폐회</b>



# 차 례

I	기조강연	7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 비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II	주제발표	
	1.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길	13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2.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	31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3.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	49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	



# 01

##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 비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I. 모두 인사

-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오늘 우리도정 발전에 깊은 의미를 가지는 ‘미래100년, 충남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를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 심포지엄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님
-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 원장님
  -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도 주제발표까지 맡아주시니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특히, 오늘 대담에 좌장을 맡아 주실 정순오 한남대 교수님
  - 참석하여 주신 도의회 및 시군 의회 의원님, 시장·군수님, 정책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직능대표, 언론사, 공무원, 학생 등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II.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

- 오늘 심포지엄은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도민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다해 비전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답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내포시대의 의미」와 「환황해권 중심의 대도약 시대를 열어 갈 미래 비전」입니다.

- 작년 12.28. 충청도청이 마침내 도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1896년 고종황제 33년의 건도 이래 117년만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 우리 충남은, 건도 당시 공주시대에는 농업국가의 중심역할을 했고, 1932년부터 시작된 대전시대에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중심축이었던 경부축의 핵심이었습니다.
  - 21세기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심 무대가 되며, 경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주역은 아시아 될 것임. 즉 '서해안시대'가 되었음.
- 그렇다면, 내포시대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으로 표현했듯이 전 세계 경제를 리드 하는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 '서해안시대의 출발점'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충청남도가 환황해권경제 그리고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아시아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앞장서서 개척해나가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음
- 또한, 내포시대의 개막은 충청남도의 재도약과 도민 전체가 골고루 풍요롭고 행복한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 Ⅲ. 충남의 미래 비전

- ①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 ② 골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듭니다.
- ③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갑니다.

- 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 더 큰 충남으로의 도약
  - 20세기 미국 시장에 의존했던 산업화 시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축은 경부선이었습니다.
    - 개항기에는 목포·인천항이, 산업화시기에는 부산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는 당진·대산·보령항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서해안이 그 주역이

## 될 것이라 확신

-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세계로 나아가는 “물류의 큰길”을 열어갈 항만물류 및 해양·수산 전담조직을 새로 꾸려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 내포신도시는 바로 이러한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충남의 미래가 있는 곳
  - 21세기 충남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도시,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더 큰 충남으로 도약할 것임

### ② 골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듭니다.

- 내포신도시와 4대권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 북부권은 환황해권 생산·교역 거점으로, 서해안권은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로, 내륙권은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로, 금강권은 역사·문화관광·생태의 요람으로 권역별 기능특화와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 또한,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골고루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 4대 권역별 발전계획

- ① 북부권 : 환황해권 생산·교역 거점(천안·아산·서산·당진)
- ② 서해안권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태안·보령·서천)
- ③ 내륙권 :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홍성·예산·공주·계룡·청양)
- ④ 금강권 : 역사·문화관광·생태의 요람(논산·부여·금산)

### ③ 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 순순환 경제육성과 경제발전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체제 구축,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도모, 상생산업단지 조성, 강소기업 육성 등 충남형 순순환 경제 모델 구축
  - 2012년 현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립지원 등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는 민간주도의 협동조합 육성

-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아우르는 3농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이 살아가는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
- 행복한 충남을 이루기 위해 도민 모두가 이용하고 누리는 문화 관광의 구현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충남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인 3대 문화권\* 개발
    - \*3대 문화권 : 백제·내포·기호유교문화권
  -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 \*행복경로당 운영,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자리 연계 복지시책 확대,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 등

#### IV. 마무리 말씀

- 이제 새롭게 출발한 내포시대에는 우리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3농 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면서, 서해안시대의 출발점을 공고히 다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민의 참여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도정과 비전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 세분의 발제내용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더 크게 도약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02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길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길



2013. 6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진도

## 1. 왜 행복인가

당신은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매우 행복 / 조금 행복 / 보통 / 조금 불행 / 매우 불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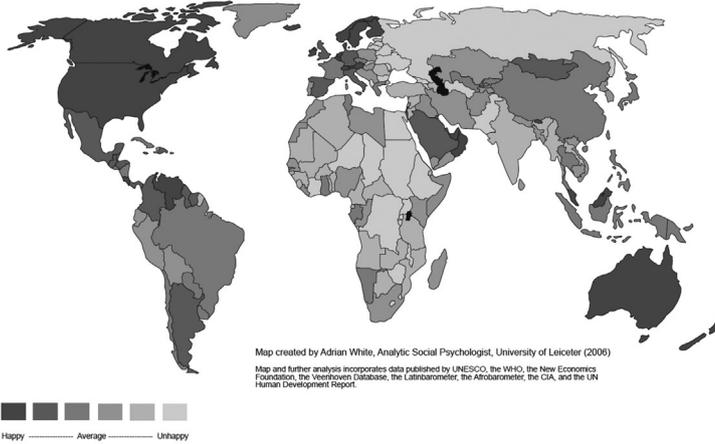


# 1. 왜 행복인가

##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행복지수는 하위권

- ✓영국 레스터대학의 나라별 행복지수에서 102위(2006년)
- ✓주관적 행복 체감도에서 56개국 중 34위(갤럽조사, 2011년)
- ✓OECD 주요국 "보다 나은 삶" 지수에서 36개국 가운데 27위

A Global Projection of Subjective Well-being:  
The First Published Map of World Happiness



OECD 주요국 행복지수 순위

세계 36개 선진국 대상 11개 지표 산출 점수(10점 만점)



한국 주요 항목별 점수



출처 : 연방뉴스, 2013.05.28

# 1. 왜 행복인가

## 행복감과 1인당 실질소득의 관계

### ✓이스털린 역설

소득이 일정수준(\$1만5천)을 넘어서면 행복은 더 이상 소득과 함께 증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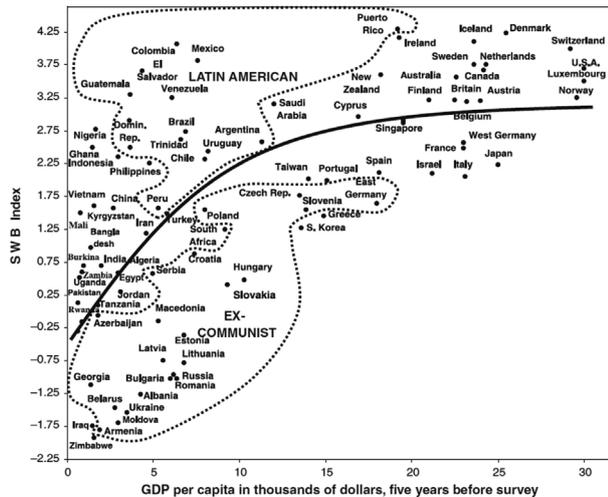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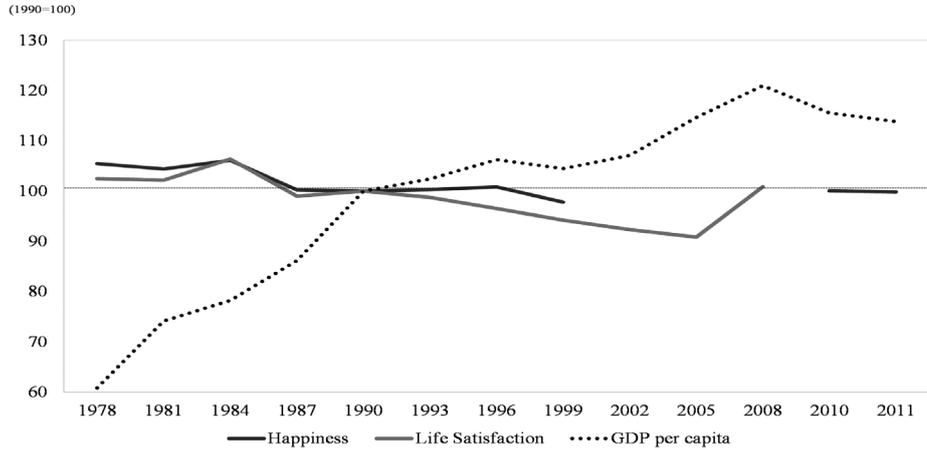


Fig. 2. Subjective well-being (SWB),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different types of societies. Well-being index is based on reported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using mean results from all available surveys conducted 1995-2007 (cubic curve plotted;  $r = .62$ ). PPP=purchasing power parity estimates.

# 1. 왜 행복인가

## 행복감과 1인당 실질소득의 관계

✓ 일본 국민의 이스털린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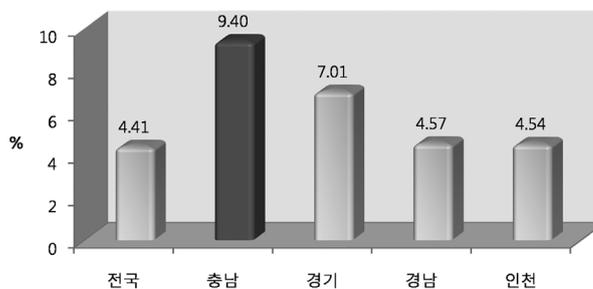
주 1 : '행복'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자료는 국민생활방식선호도조사에서 추출  
 주 2 : 1인당 GDP는 국민계정시스템과 GDP 분기보고서와 인구예측보고서에 기초(1990 = 100)  
 출처 : Yamauchi, 2012

# 1. 왜 행복인가

## 충남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최고

✓2000년대 GRDP의 연평균 성장률에서 충남은 9.4% (전국의 수치는 4.4%)

✓1인당 GRDP는 3,338만원(2009년)으로 전국 평균의 1.5배, 전국에서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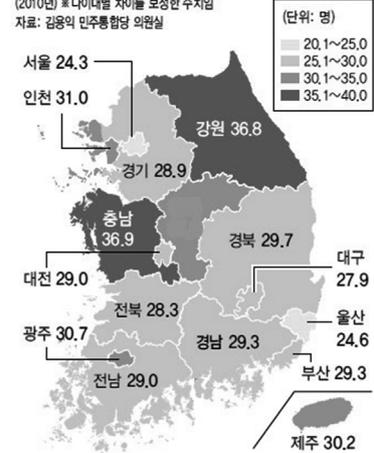
# 1. 왜 행복인가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경제성장과 괴리

- ✓ 최근 10년간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 수준으로 전국 평균 이하
- ✓ 가계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전국 3위
- ✓ 취약계층비율은 전국에서 1위
- ✓ 201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에서 충남은 36.9명으로, 이는 가장 낮은 서울(24.3명)에 비해 12.6명만큼 더 많은 수치에 해당(출처 : 한겨레 뉴스, "자살률 지역별 '최고 4배차' ...어떤 차이이길래", 2012.9.10)

우리나라 시도별 10만명당 자살자 수

(2010년) ※ 나이에별 차이를 보정한 수치임  
 자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실



10만명당 자살자 수 상·하위 5개 기초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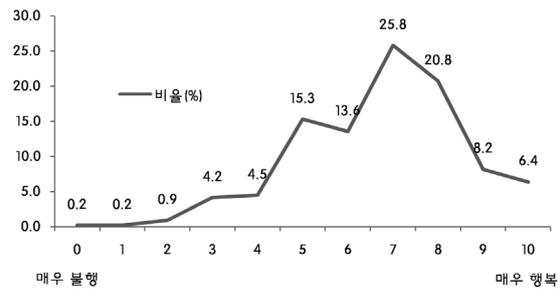
상위 5곳		하위 5곳	
강원 홍천 59.2	1위	충남 계룡 14.5	
충남 예산 58.4	2위	전남 완도 16.7	
경남 합천 57.0	3위	경기 과천 16.9	
강원 정선 56.9	4위	경남 남해 18.6	
경북 청송 55.7	5위	서울 마포 19.1	

# 1. 왜 행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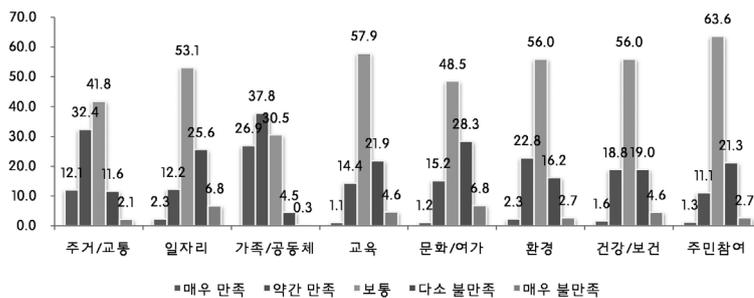
충남 도민의 행복감

- ✓ 표본의 구성
  - 충남 도민 2,010명
  - 여성 54.3%
  - 40대 36.7%
  - 대학 졸업 이상 학력 23.3%

✓ 전반적인 행복감 (11점 척도, 0~10점)



✓ 영역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고승희 외, 2012)

# 1. 왜 행복인가

충남 도민의 행복감 (충남발전연구원(고승희 외), 2012)

- ✓ 충남 도민의 행복감은 건강과 함께 근로소득, 주택의 소유 등이 중요
- ✓ 고학력 혹은 기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
- ✓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

누가 더 행복한가



# 2. 행복이란

행복의 개념과 정의

- ✓ 행복은 주관적 안녕으로서, 이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그리고 기쁨수준을 포함하는 전반적 개념과 직무만족, 자긍심, 그리고 통제신념을 포함하는 세부적 개념을 포괄 (Veenhoven, 1991)
- ✓ 행복의 정의 : "복된 좋은 운수" ,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표준국어사전)
- ✓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 (아리스토텔레스, 출처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 결국, 행복이란 주관적 만족이나 안녕(well-being)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객관적 여건이 갖춰질 때 실현가능

## 2. 행복이란

###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 ✓ 물질적 기본 요건의 불충족 (혹은 절대적 빈곤)
- ✓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 ✓ 건강문제
- ✓ 불안정한 가족관계
- ✓ 공동체 파괴
- ✓ 마음의 여유 부재
- ✓ 환경오염과 소음
- ✓ ...

## 2. 행복이란

### 웰빙의 결정요인

- ✓ 소득 : 어느 수준까지는 행복을 증가시킴
- ✓ 고용 : 실업은 행복을 감소시킴
- ✓ 가족 : 결혼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행복을 증가시킴
- ✓ 불평등 : 불평등이 심할수록 행복의 수준이 낮아짐
- ✓ 나이 : 일반적으로 나이와 행복 간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임(일본의 경우 노후에 행복의 수준이 감소, 오사카 대학 조사결과)

출처 : Yamauch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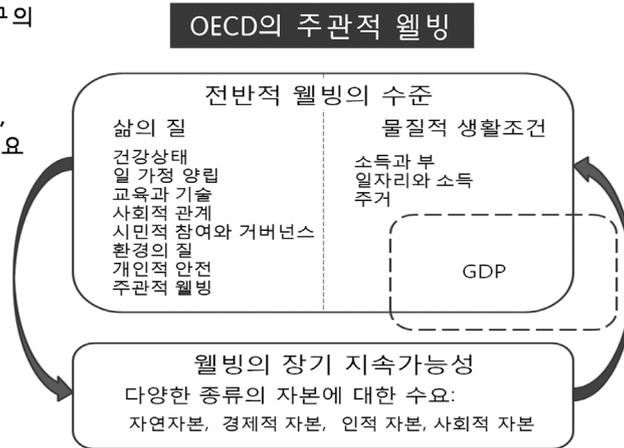
### 3.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

#### OECD

- ✓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개발과 측정
  -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진행

-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충분한 돈의 유무가 가장 중요
- 소득에 비해, 일자리, 건강, 친구, 선택의 자유 등이 중요



### 3.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

#### 일본

- ✓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자살률의 증가
- ✓ 내각부 산하 웰빙측정위원회 구성
- ✓ 행복지수 및 지표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행복도를 측정·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
-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복정책 추진 (후쿠오카 현, 쿠마모토 현, 효고 현, 교토 현, 후쿠이 현 등)

#### 프랑스

- ✓ 국가 차원에서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노력
- ✓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2008년에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 영국, 캐나다, 태국, 중국 등

- ✓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정책화에 관심

## 4.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정책

### 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 ✓ 행복이 모든 국민의 궁극적 바람이므로 행복을 위한 여건을 창출하는 것이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
- ✓ "사회적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추구
- ✓ 1972년 GNH 개념이 처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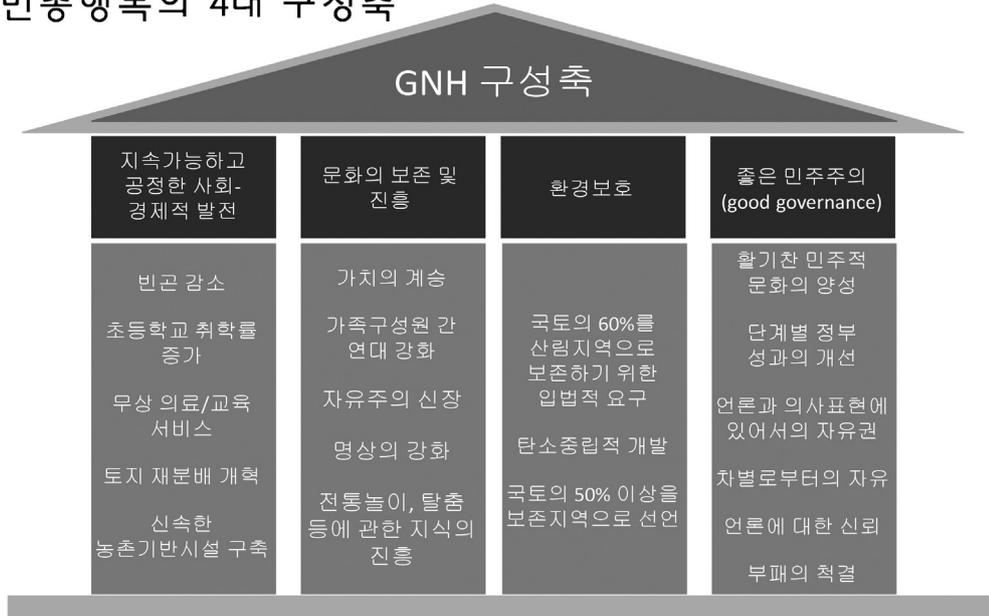
국민총행복위원회



부탄 국기

## 4.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정책

### 국민총행복의 4대 구성축



## 4.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정책

### GNH 지표의 구성

- ✓ 9개 영역 :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사용, 교육, 문화적 다양성 및 회복력, 좋은 민주주의(good governance), 공동체 활력도, 생태학적 다양성 및 회복력, 생활수준
- ✓ 33개 지표
- ✓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표와 설문조사 내용은 계속적으로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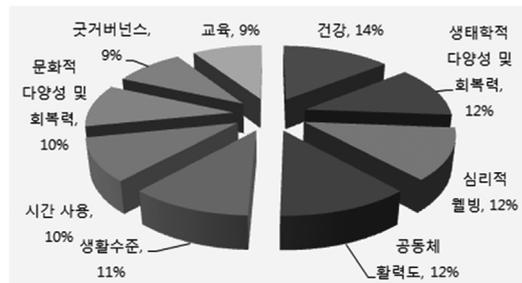


## 4.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정책

### GNH 조사

- ✓ 2008년부터 2년 마다 조사 :
- ✓ 2010년 조사
  - 8천 여명의 조사대상, 1인당 4시간 30분 소요, 조사대상자에 1일 최저 임금 지불
  - 우수한 영역 : 건강, 생태학적 다양성 및 회복력, 공동체 활력도, 문화적 다양성 및 회복력
  - 우려되는 영역 : 교육, 좋은 민주주의 (good governance)

개별 영역의 행복에 대한 기여도



## 4.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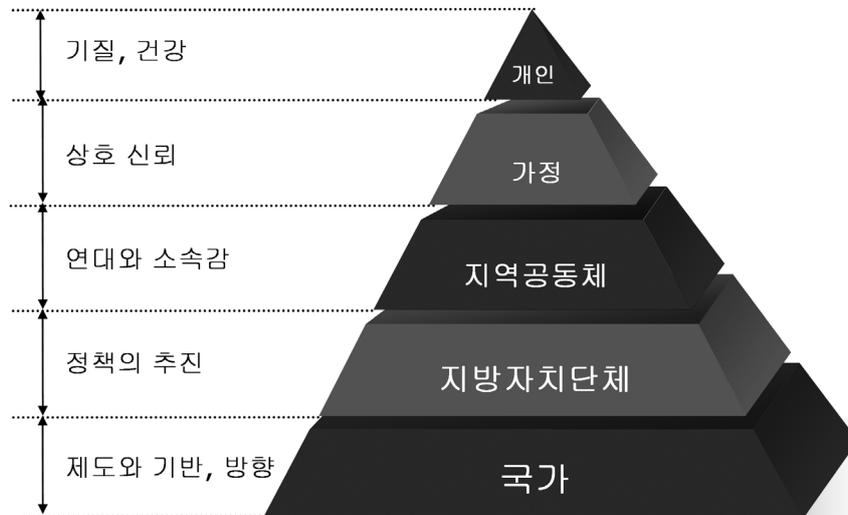
### 정책심사도구 (Policy/Project Screen Tool)

- ✓ 국민총행복위원회(GNHC)에서 정부의 신규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국민총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여 해당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실행여부를 결정
- ✓ 22개 선정지표로 구성
- ✓ 각 선정지표에 대해 1~4점을 부여, 해당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선정/실행되기 위해서는 평균 3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 1점 : '부정적'
  - 2점 : '불확실'
  - 3점 : '중립적'
  - 4점 : '긍정적'
- ✓ 해당 정부부처와 GNHC가 별도로 심사
  - 심사단은 다양한 집단에 속한 10~15명으로 구성
- ✓ 부탄사람이 특별히 행복하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
  -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시

22개 선정지표
Equity
Economic Security
Material Well Being
Engagement in Productive Activities
Decision Making Opportunity
Anti Corruption
Legal Recourse
Rights
Gender
Information
Skills and Learning
Public Health
Water and Air Pollution
Land Degradation
Bio-diversity Health
Social Support
Family
Leisure
Culture
Values
Spiritual Pursuits
Stress

## 5.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개인의 행복은 모든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요



## 5.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행복은 공공정책의 궁극적 목표

- ✓ 행복은 주관적 개념에 해당하나, 객관적 여건 역시 중요
- ✓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충족을 위해 정책이 요구
- ✓ 경제발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축소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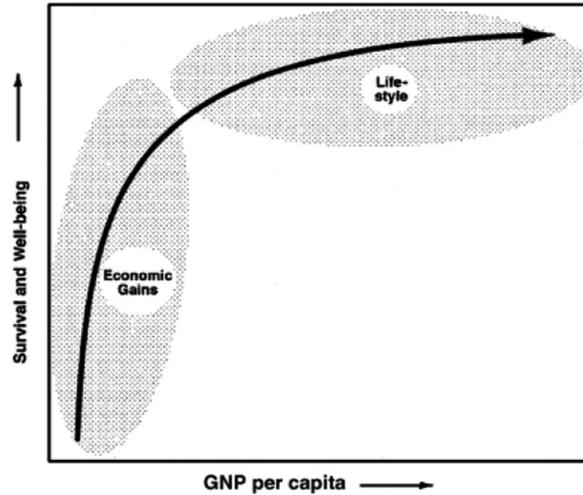


Fig. 1. Economic development leads to a shift in survival strategies. From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by R. Inglehart, 199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pyright 1997 by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printed with permission.

## 5.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 정책

- ✓ "국민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 이나 마찬가지로"
- ✓ 국민행복 정책 (5년간 예산)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6.3조원)
  -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0.5조원)
  - 어르신에게 국민행복연금 (17.0조원)
  - 어르신 일자리 매년 5만개 창출 (1.3조원)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2.1조원)
  - 노인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0.6조원)
  - 새 아기 장려금 지급 (2.1조원)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2조원)
  -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5.3조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5. 31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들만으로는  
도민의  
행복증진에  
한계

## 6.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 도정 패러다임의 변화

- ✓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 ✓ 지속가능성 증대
  -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 ✓ 내발적 발전은
  -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 자치(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를 중시
  -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의 강화가 궁극적 목표

#### 외생적 개발

지역발전의 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성장(개발) 제일주의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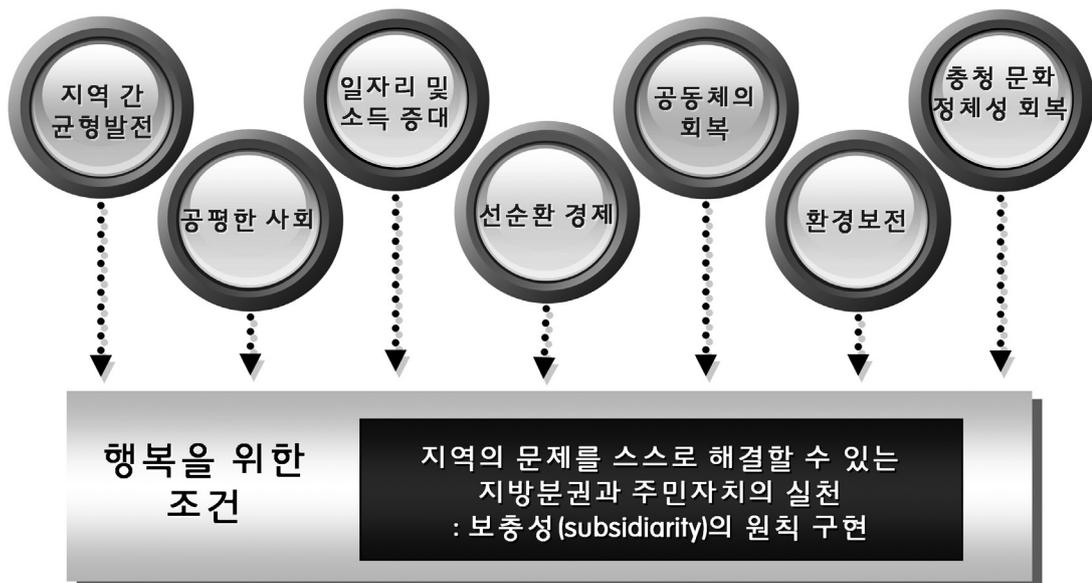


#### 내발적 발전

- ✓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에 보존되도록 하는 발전 전략
- ✓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통합적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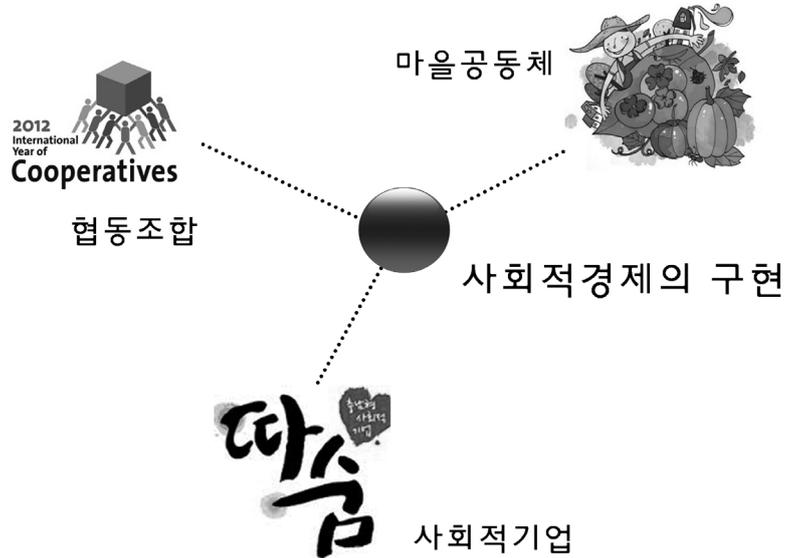
## 6.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 충남도의 정책과제



## 6.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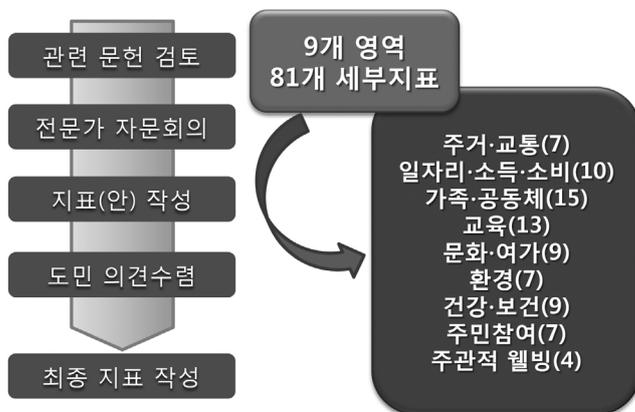
### 지역공동체의 회복



## 6.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

✓ 지표개발 과정과 지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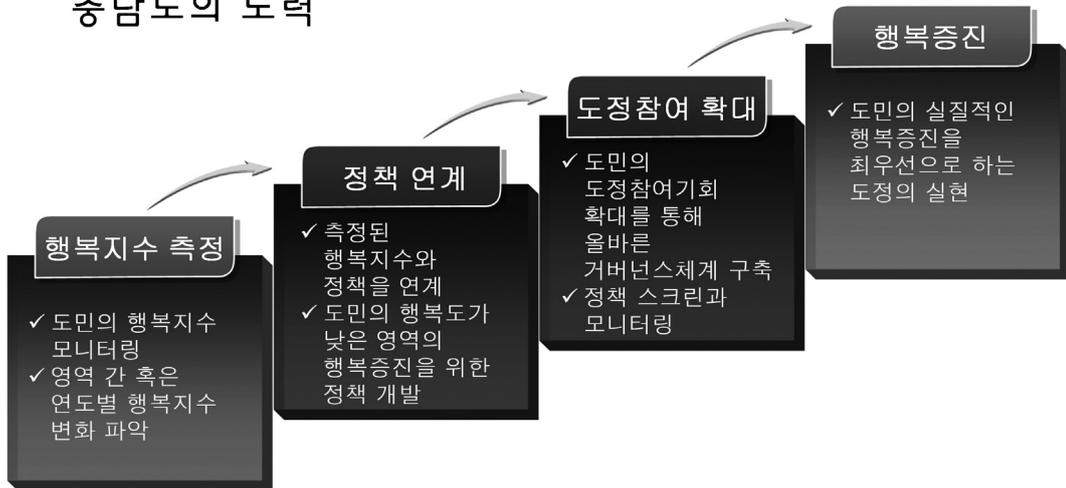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고승희 외, 2012)

✓ 지표/지수의 측정과 정책연계



## 6.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 충남도의 노력



## 7. 맺음말

결국,  
도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 ✓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 ✓ 도민의 주체 역량(사회적 힘) 강화

감사합니다



# 03

##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 방향

2013. 6. 17

박양호

## 목차

1. 메가트렌드
2. 역동적 잠재력
3. 비전과 전략
4. 전략별 과제
5. 결론

# 1. 충남에 다가오는 7가지의 메가트렌드

## ① 세계경제사이클과 전면적 자유화

- 2020년 세계경제피크를 향한 상승적 흐름
- 단기적 침체속의 장기적 상승궤도
- 세계경제의 원동력: INBEC(IT-NT-BT-ET-CT)
- 전세계적 FTA확산으로 자유통상시대

1

## ② 중국의 비약과 환황해경제권시대의 본격화

- 세계경제의 G2로서의 중국:  
세계경제의 황금주기를 적시활용
- 중국의 경제흡인력, 외국투자의 흡인
- 경제특구벨트와 내륙의 균형발전도모
- 중국의 신형도시화 전략추진
- 환황해경제권의 본격적 전개/ 지역간 경쟁심화

2

### ③ 수도권인구유입의 역전

- 충청권이 수도권인구유입의 중심지
- 젊은 인구계층의 지방화가 속제
-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정착효과
- 인구의 지방화 지속 가능

3

### ④ 세종시 영향의 지역간 차등적 효과

- 세종시의 영향 점진적 증대
- 국가행정중심지/국가정책 싱크탱크 중심지
- 새로운 균형발전중심지
- 세종시의 네트워크 경제 파급:  
충청권이 일차적 중심지

4

## ⑤ 창조경제시대의 전개

- 선도형 창조경제의 중요성
-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과학기술과  $\pi$ 의 전산업적 접목
-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융합지역의 선도적 경쟁력

5

## ⑥ 국민체감형 행복이 중시되는 사회적 변화

- 국가발전과 개인 행복의 조화
- 지역발전의 주민체감적 성과가 성패요소
- 개인행복의 기본조건충족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
- 일자리+건강+안전+문화+복지의 융합된 삶 지향

6

## ⑦ 충청도청이전의 공간적 변혁

-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 해양과 내륙의 지렛대 도시의 출범
- 해양경제 잠재력의 활용배가
- 공간의 변혁이 개방과 개혁의식의 유발

7

## 2. 충남의 역동적 잠재력

- 인구 200만명의 집적과 증가추세
- 세계경제의 용광로, 중국과 근접한 서해안의 중앙지
- 수도권과 세종시의 잠재력 활용
- 역사문화자원, 자연풍광, 생태자원의 풍요
- 도시와 농어촌 입지의 적절한 조화
- 창조경제자원의 경쟁력 보유
- 공간적 변혁의 가시화와 다각적 효과

8

### 3. 충남의 비전과 전략

- 충남의 발전코드: '4新'(Four News)
- 충남의 4대 전략
  - 新성장 (New Growth)
  - 新글로벌(New Global)
  - 新문광(New Culture-Tourism) 文光
  - 新삶의 질(New Quality of Life)
- 충남의 비전: 세계를 향한 창조경제와  
행복생활의 新중심지

9

### 新 ?

- 충남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 새로운 메가트렌드에 충남의 전략적 대응
- 충남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의 수혜
- Grand Together: 충남전체 발전+충남도민  
의 행복+충남인근지역과 공동발전+대한민  
국의 발전 선도+동북아번영의 전진기지

10

## 4. 전략별 과제

### 新성장

- **충남전역의 '창조경제밸리' 구축**
  - 주요 핵심산업지대와 신산업지구를 창조경제의 중심지
  - 특히 INBEC <IT-NT-BT-ET-CT>경제루트를 집중육성
  - 과학기술과 IT융합의 원천기술개발 및 상업화
  - 대전R&D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량 활용

11

- 대학과 기업의 산학링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유발 및 고급인력의 지역정착
- 아산신도시, 공주 KTX 역세권의 창조경제지구화
- 농어업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화
  - \* 애그로 파크(Agro Park)의 시범구축: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기지
- **중추도시권 개발로 성장 효과 확산**

12

## ● 내포신도시의 다기능 첨단도시기반구축

- 첨단행정
- 첨단기술산업
- 내포 행복생활권의 중심지
- 연안-내륙발전의 교두보
- 사통팔달의 도시내외 교통망
- 충남의 균형발전선도
- 내포문화와 백제문화의 조화
- 그린시티

→ 내포  
신도시

13

## ● 동서 간선교통망의 확충과 복합환승 시스템개발

## ● 충남과 연접권역과의 공동발전체제 구축

- 충남과 전북의 새만금지역
- 충남과 대전 및 세종시와 충북 오송지역
- 충남과 수도권(경제자유구역)
- 아산만과 경기만 등 공동발전 협의체 운영

14

## 新글로벌

- 환황해경제권의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  
평택항-당진항을 연계메가포트로 개발
- 한 중 생산 물류 협력단지 개발 및 네트워크화
  - 충남과 중국연안 주요도시에 시범단지 조성
  -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의 전진기지화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와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세제, 규제 등 관련 획기적 개방인센티브의 제도개혁
- '충남 글로벌 창조경제엑스포' 기획 추진

15

## 新문광 [文光]

- 백제문화벨트의 개발: 백제문화의 복원, 보전, 재현
  - 부여와 공주를 백제문화고도로 발전, 백제문화단지 개발
  - 중국과 일본 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상품개발
- 내포문화권, 기호유교문화권을 개발
- 태안반도-충남 다도해-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관광벨트 구축
  -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해양관광 상품개발/ 특히 중국 맞춤형
- 산-강-바다를 연계, 독특한 '힐링 회랑' 개발
  - 충남의 갯벌자원 등 B & B (Bio & Beauty) 산업육성과 연계

16

# 新삶의 질

- **충남형 ‘행복생활권’ 프로그램 추진**
  - 주민 실생활권역을 ‘행복생활권’ 으로 규정하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 충족
  - 특히 행복생활권별 7가지의 기본수요기반 마련: ‘지역사회의 무지개’ 프로그램
  - 주민참여-지자체주도-중앙정부 지원의 협업적 추진
  - 시범 생활권부터 단계적 추진
- **도시재생정책과 연계 추진**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근린생활형 도시재생 정책 등 가시화

17

## ● 행복생활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무지개

의[醫] · 직[職] · 주[住] · 육[育] · 교[教] · 문[文] · 안[安]

- |    |                              |
|----|------------------------------|
| 醫의 | ➢ 도시재생지구 내외의 의료·건강 지원서비스 충족  |
| 職직 | ➢ 마을기업 등 주민 맞춤형 일자리 (시간제 활용) |
| 住주 | ➢ 주민의 주거안정                   |
| 육육 | ➢ 자녀교육 및 보육환경의 충족            |
| 交교 | ➢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강화            |
| 文문 | ➢ 생활스포츠 시설 등 문화레포츠 여건 충족     |
| 安안 | ➢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 충족        |



18

### 국민행복형 지역사회의 무지개

로터리



박 아 호  
국토연구원장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한다.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실생활 공간인 지역 사회에도 희망의 무지개가 떠야 한다.

생활공간상의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직·주·육·교·문·안이라는 일곱 가지 삶의 기초조건으로 이뤄진다. 이는 '희망의 새시대'를 향한 지역 사회가 패키지로 갖춰야 할 일곱 가지 조건으로서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민행복형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요소가 된다.

먼저 '의(醫)'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지역 사회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에 공공보건을 비롯해 민간의 의료시설에 필요 인력과 장비가 있고 응급 앰블런스체제가 잘 운영돼야 한다.

'직(職)'은 직장을 의미한다. 다양한 마을기업과 마을 협동조합 등이 구성돼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이 여러 형태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안정된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住)'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 사회 주민 누구나 주거가 안정돼야 한다. 저렴하고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일부 저소득층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임대료 보조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육(育)'은 교육과 보육을 의미한다. 지역 사회 가까이 초중고등의 자녀교육환경이 구비돼야 하고 어린 자녀의 국공립 보육환경도 잘 갖춰져야 한다. 나아가 구직자를 위한 취업재교육 서비스도 필요하다.

'교(交)'는 교통이다. 지역 사회 안팎에 원활한 대중교통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언덕과 번두리 지역에도 버스서비스가 이뤄지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전철망을 지역 사회로 순차적으로 연장해 그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야 한다.

'문(文)'은 문화를 의미한다. 주민이 편리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등을 구비한 스포츠센터가 필요하며 복합문화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적절히 구비해 교류와 지적 문화센터로서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안(安)'은 안전이다. 지역 사회 주민이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방범과 방재를 위해 취약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을 우선 구비해야 한다.

지역 사회 생활권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삶의 환경을 패키지로 구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 주민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며 지자체는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레인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고도의 협업적 지원시스템은 필수다.

생활공간 무지개를 만드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국민행복형 지역 사회발전의 혜택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 **충남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고 전파하는 '창조국토'의 선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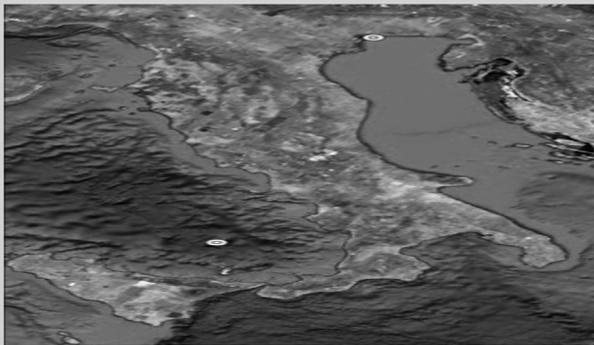


##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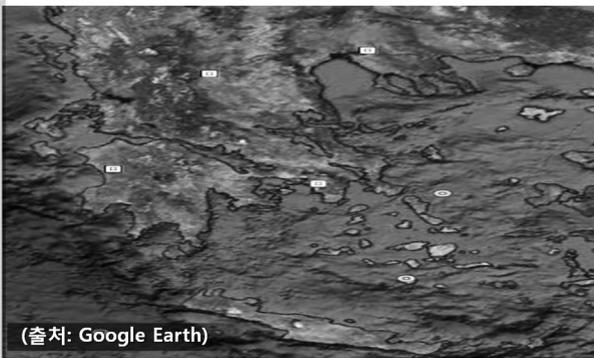
**“3면의 해안선으로 보아도 강토에  
불만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해안선만은 실상 과분하다 할 만큼  
조물주가 백의족에게 시혜하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1

##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출처: Googl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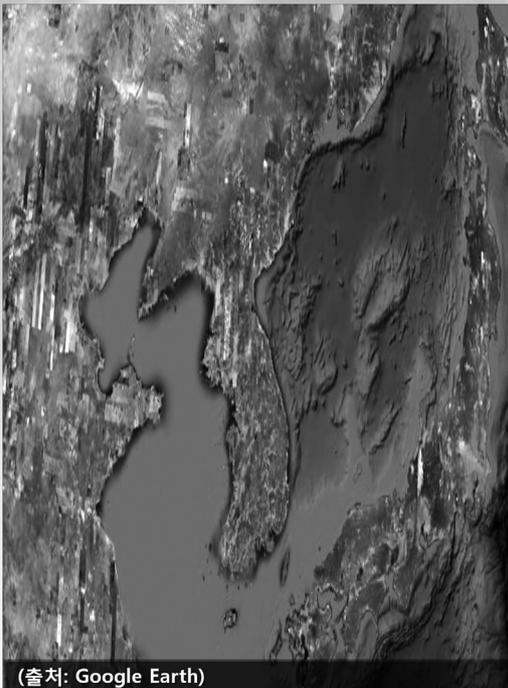
22

##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 . . . 한다면 이는 범에게  
날개가 붙은 격이 될 것이다.  
지구위에서는 이 이상의 이상적 강토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그것이  
곧 조선 반도이다.”

23

## 김교신 선생의 [조선지리소고]



(출처: Google Earth)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  
기는 이만한 데가 없다.”

24

“동양의 온갖 고난도 이땅에 집중  
 되었거니와 동양에서 산출해야 할 바  
 모든 고귀한 사상, 동반구의 반만년의 총  
 량을 대용광로에 달이어낼 엑기스는 필연  
 코 이 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라.”

서울경제

2013년 04월 12일 금요일  
 A38면 오피니언

창조국토론

로터리



박 아 호

국토연구원장

우리 한반도의 특성을 논하면서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이며 심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섬으로 구성된 아예 해를 보유한 그리스 반도와 길다란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의 장점만을 떼어다 연결하면 이는 밤에 날개가 붉은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과 해양의 각기 다른 강점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김 선생은 “지구 위에서 그런 이상적 강토가 바로 우리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동북아 심장부에 위치한 한반도가 천혜의 지정학적 행국을 띠고 있음을 통찰한 것이다.

김 선생의 결론은 이렇다. 과거에는 동양의 온갖 고난이 이 땅에 집중됐지만 미래에는 지구촌 동반구의 새로운 문명 엑기스를 필연코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우리 국토는 한반도가 지닌 최상의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해 인류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토는 ‘창조국토’가 돼야 한다. 국민의 우수한 두뇌와 ‘할 수 있다’는 캔 두(can do)의 도전정신, 여기에 통합된 국민의지가 더해지면 능히 창조국토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시대’는 창조국토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국정 4대 목표는 창조국토의 네 가지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부흥의 축을 위해 과학기술과 융합된 창조경제가 꽃을 필 수 있도록 창조산업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행복의 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동시에 중추도시권 구도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재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혁신하고 세종시 체제의 완성 등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룩해야 한다.

문화융성의 축을 위해 경주·부여 등 고도(古都)를 중심으로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한류문화가 전세계로 뻗어 나가기 한다.

평화통일기반의 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변화하는 등 한반도 융비의 새로운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네 가지 축이 서로 융합된 힘을 발휘하는 창조국토공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해야 한다.

- **충남 도민과 지자체와 대학, 기업,  
중앙정부간 고도의 협업필수**



- **국토전체의 발전과 지역현안의 조화**

- **충남 도청 이전의 공간적 변혁을 뛰어넘어 세계를 향한  
지역경제와 삶의 변혁의 새로운 계기로 승화,  
성공적 결과를 성취해야 할 것임**

27

### <참고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2),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국토교통부(2013),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 충청남도(2011), 도청이전백서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 충청남도(2012), 충남 장기발전전략
- 충남발전연구원(2012.10),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보고대회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2.11),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컨퍼런스)

28

- 박양호(2013.3-4), 서울경제 칼럼(로타리)게재
  - “창조경제형 도시재생모델”(2013.3.8)
  - ‘행복생활권’을 담는 新국토계획(2013.3.15)
  - “도시권중심의 新지역발전정책”(2013.3.22)
  - “ICT융합형 창조도시”(2013.4.5)
  - “창조국토론”(2013.4.12)
  - “창조경제와 공간정보산업”(2013.4.19)
  - “국민행복형 지역사회의 무지개”(2013.4.26)

대단히  
감사합니다

# 04

##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



#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

 Public Art Studio

## - 목 차 -

1. 시작하며
2. 역사
3. 풍토
4. 국내 사례
5. 해외 사례
6. 바다목장
7. 독살
8. 해안사구
9. 결론

- 1 -

## 1. 시작하며

옛 백제가 자리잡았던 터인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당나라, 일본 등과의 무역이 활발했다. (그 흔적으로 현 지명인 唐津 (당진)을 들 수 있다.) 즉, 복잡한 해안선과 산과 강과 비옥한 평야지대의 다양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산업, 문화적으로 발달하기에 적합한 여건들이 충족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점들로 인해 문화적 꽃을 피웠던 백제시대로부터 충청남도는 해안의 항구 도시들의 번성과 수출과 무역이 활발했던 해양국가로서 자리잡았다. 그러나 산업의 이점과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차츰 해양국가로서의 존엄성 보다는 복잡다단한 시스템과 편리와 합리성을 우선하는 시대 조류에 편승함으로써 그 역사적 문화적 기상이 잊혀져 왔다.

이제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적 조류 속에서 해안, 생태적 문화를 조성 발전 시킴으로써, 그 흐름을 재조명하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2 -

## 2. 역사



서산 마애 삼존불 / 국보 제84호 / 백제



금동향로 / 국보 제 287호 / 백제



보원사지 오층석탑 / 보물 제104호 /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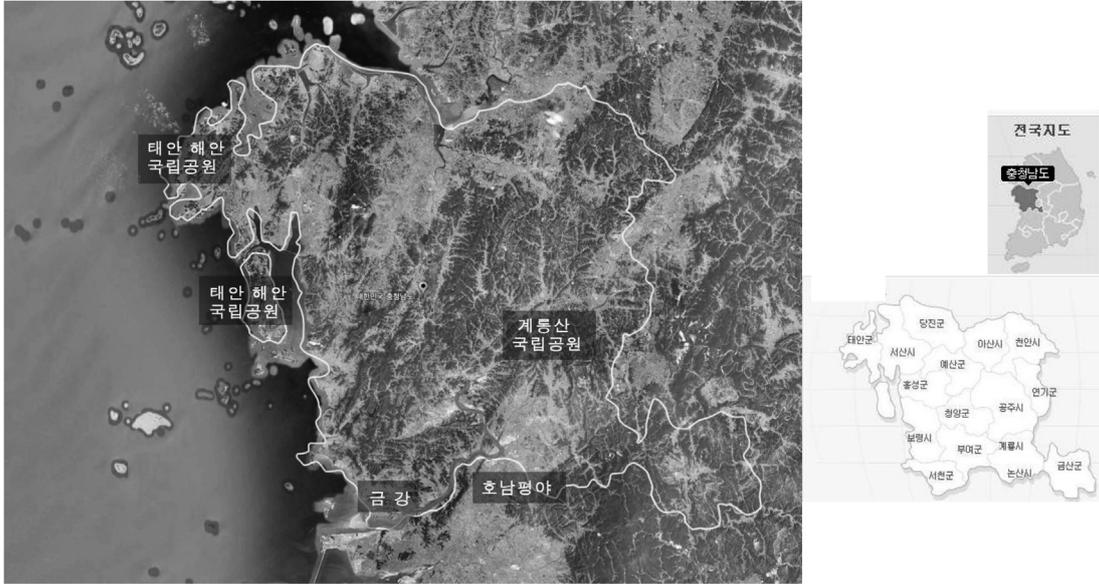


무령왕릉 / 사적 제13호 / 백제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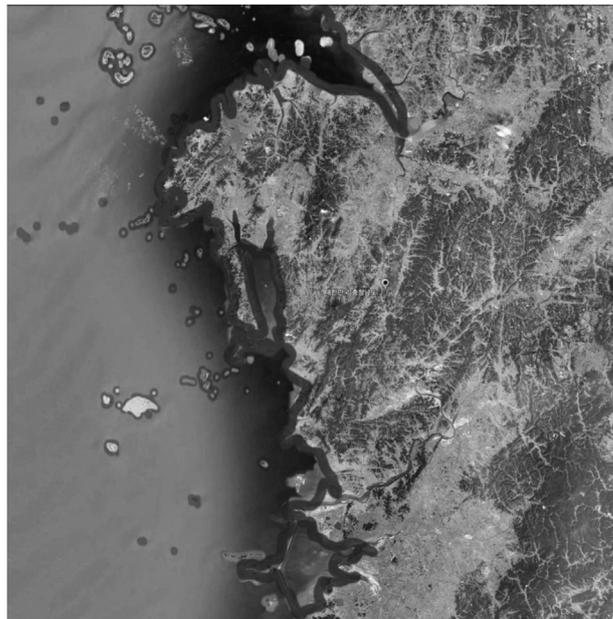
### 3. 풍토

- 산, 바다,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지리적 요건



- 4 -

- 충남의 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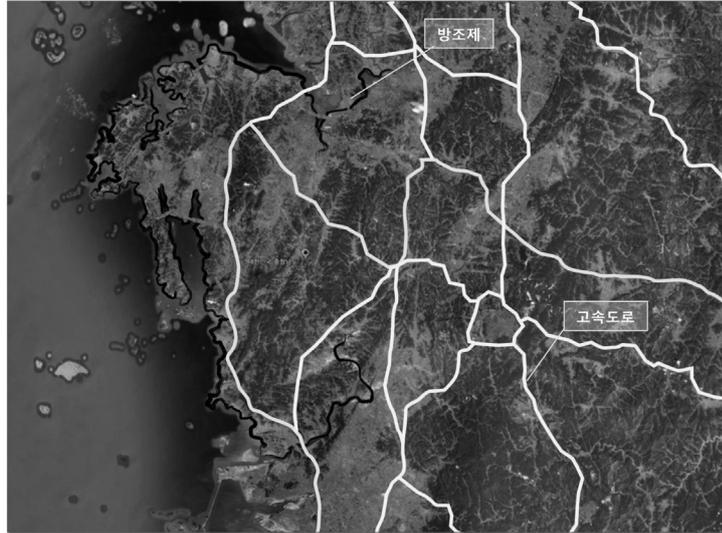
- 6 -

- 방조제

보령 방조제  
삼교 방조제  
대호 방조제  
석문 방조제  
서산 방조제  
이원 방조제  
아산만 방조제

-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당진 상주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서천 공주 고속도로



< 현재 충남의 문화의 현주소 >

일회성의 전시 행정적 요소가 많다.

소모적이고, 소비적이고, 대중 추수적 경향이 짙다.

지속가능적이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 4. 국내 사례

- 상생의 손 / 김승국 / 20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은 1999년 12월 만든 청동 조형물로 육지에 높이 5.5m의 왼손, 120m 떨어진 바다에는 8.5m의 오른손이 마주보고 있다.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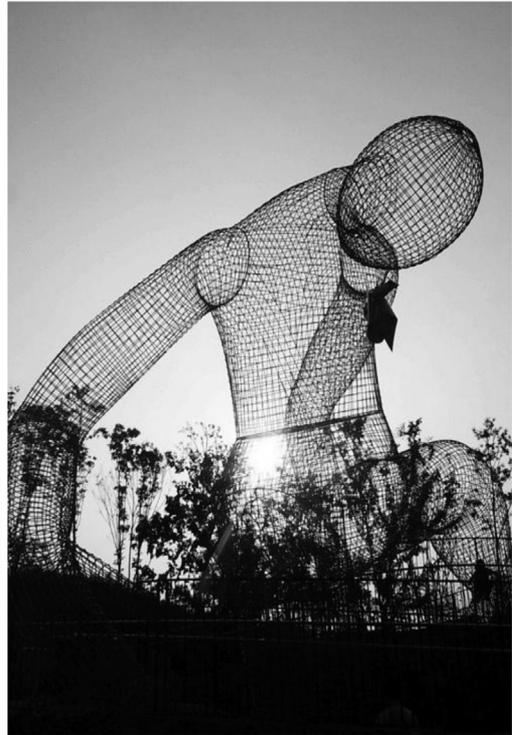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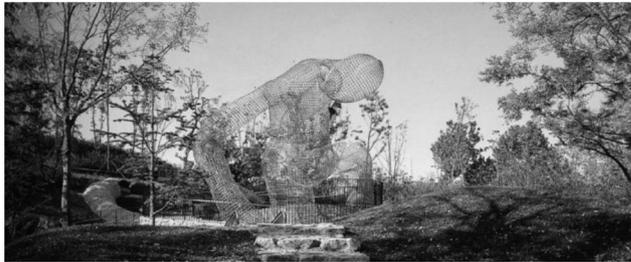
- 전태일 거리 / 임옥상 / 2006



- 9 -

서울 숲 무장에 놀이터

- 상상 거인의 나라 / 임옥상 / 2006



- 10 -

위치:서울시 성동구 서울숲\_면적: 826.45㎡

- 하늘을 담는 그릇 / 임옥상 / 2009

하늘공원 희망전망대 '하늘을 담는 그릇' 높이 4.6m 지름 13.5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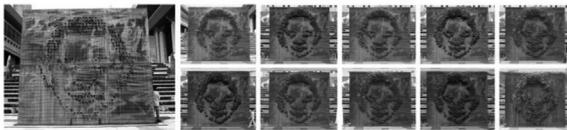


- 11 -



- 12 -

- 광화문 농사로 / 임옥상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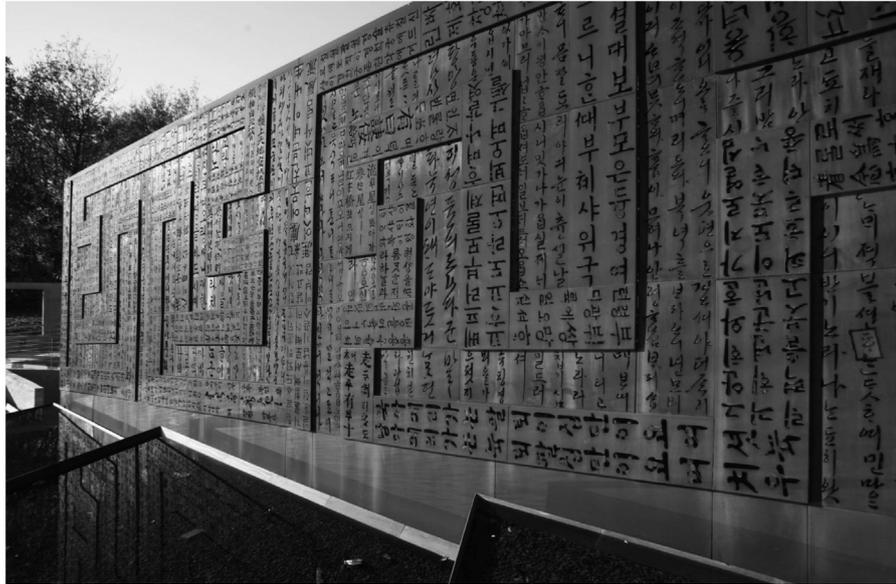


이제는 농사다 "휴의 얼굴" 2012

- 13 -

서울 숲 무장에 놀이터

- 책 테마파크 / 임옥상 / 2005년 11월 30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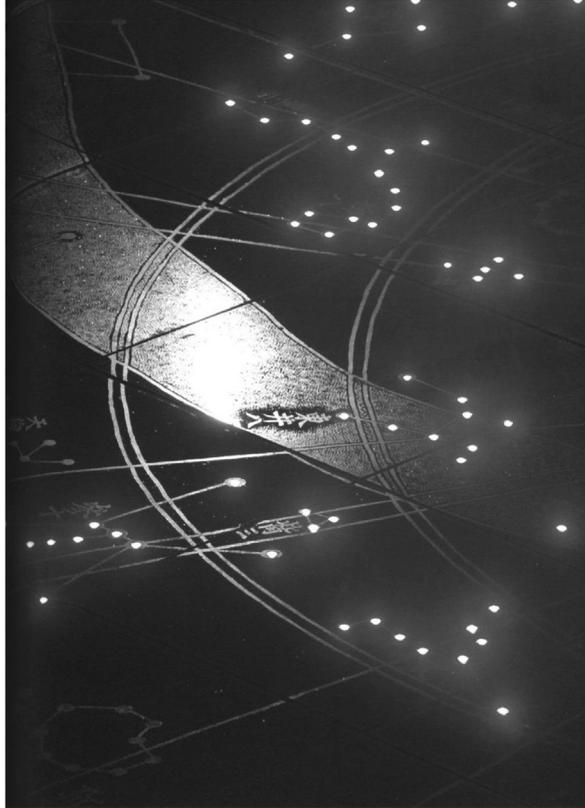


위치: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면적: 492.81㎡

- 14 -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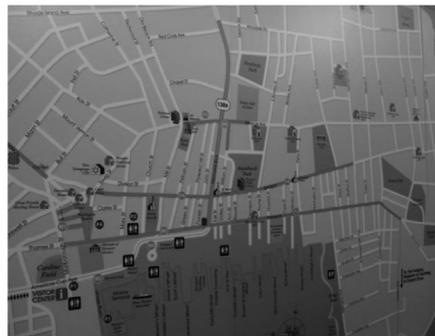


- 16 -

## 5. 해외 사례

### - 뉴포트 (Newport)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부호 별장지대



- 맨션투어

여름 시즌에 수많은 요트들이 정박한 워터 프론트를 지나 부호들의 별장을 구경하는 관광코스



- 17 -



**-클리프 워크**

3.5마일의 뉴욕 해변의 바닷가 벵랑길 곳곳에서 야생화와 야생 조류를 감상하며, 브레이크스, 로즈클리프 철장 너머 부호들의 맨션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여행코스. 대서양바람을 맞으며 굽이굽이 벵랑길을 걸다가 간간이 오픈해 놓은 저택의 뒷동산이나 벵랑 끝에서 휴식을 취해도 좋다.

**- 시애틀 워터 프론트 파크**

시애틀 아쿠아리움 남단에 위치.  
엘리트 베이, 웨스트 시애틀, 시가지 경관, 올림픽 마운틴 등을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 주변 산업 공간의 재생



- 워터 프론트 파크 / 산책로로 변한 선착장



- '안토니 곰리'와 그의 조형물

<북방의 천사> 조형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의 예

런던 동북부 300년된 게이츠 헤드라는 탄광촌은 한 때는 한창 번성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던 중, 시 의원과 당국의 결정에 의해 대형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곰리의 작품을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6억원이라는 액수로 인해 주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의 여론의 관심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의 설득과 소통의 과정 끝에 천사가 팔을 벌리고 있는 폭 50m, 높이 20m의 작품을 세웠다. 결국은 주민 모두가 오프닝에 참가하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파장을 일으키며 도시는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ANGEL OF THE NORTH, 1995 - 1998



ANGEL OF THE NORTH, 1995 - 1998  
Steel, 22 x 54 x 2.20 m, Gateshead, England. Commissioned by Gateshead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Gateshead, England  
Photograph by Colin Cuthbert, Newcastle

LAND SEA AND AIR II, 1982



LAND SEA AND AIR II, 1982  
Lead, fibreglass, Land (crouching) 45 x 103 x 50, Sea (standing) 191 x 50  
x 32, Air (kneeling) 118 x 69 x 52 cm

- 22 -

EXPOSURE, 2010



EXPOSURE, 2010  
Galvanised steel  
25.64 x 13.25 x 18.47 m  
The 6th Flevoland Landscape Artwork  
Permanent installation, Lelystad, The Netherlands  
Photograph by Allard Rozenberg, Amsterdam

- 네덜란드에 설치된 안토니 곰리의 작품

- 23 -

ANOTHER PLACE, 1997



ANOTHER PLACE, 1997  
Cast Iron, 100 elements, each 189 x 53 x 29 cm  
Installation view, Cuxhaven, Germany  
Photograph by Heilmut Ku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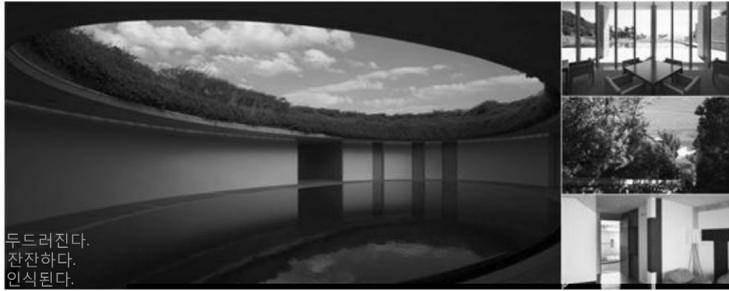
- 독일에 설치된 안토니 곰리의 작품

-안도다다오와 '나오시마'의 베넷세하우스

< 안도 다다오 > 의 건축 철학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가  
그의 건축물 속의 '물'은 알고 조용하며  
또한 건축물과 매우 인접하여 하나로

두드러진다.  
잔잔하다.  
인식된다.



- 물과 빛, 자연을 이용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베넷세 하우스



- 야요이 쿠사마의 '호박'

- 람사르 습지



<람사르 습지> 현재까지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확장된 정보센터 네트워크, 방문자정보시스템, 인쇄 및 디지털 정보, 바덴해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전문적인 지침 등을 통하여 방문자들의 자연체험학습 수준은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고, 결과적으로 방문자와 바덴해 모두 혜택을 입고 있다. 바덴해와 인근지역에는 총57개소의 정보 및 안내센터(네덜란드 9, 독일 4, 덴마크 6)가 위치한다. 더욱이, 바덴해 전체적으로 방문자들이 갈만한 곳에 또는 방문자들이 바덴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경로를 따라서 곳곳에 사인물과 다양한 정보망판이 설치되어 있다.



바덴해협력은 세계에서 접경지 람사르습지 관리를 위한 가장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 사례로 칭송되고 있다. 불과 한 세대 이전에는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 지역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여러 압력이 현존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요소들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주요개발과 세계화 영향(항구, 선적, 에너지 부문, 외래종),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들이다. 바덴 해라는 독특한 자연자산을 위한 공동협력은 30년 전 출발 때 보다 지금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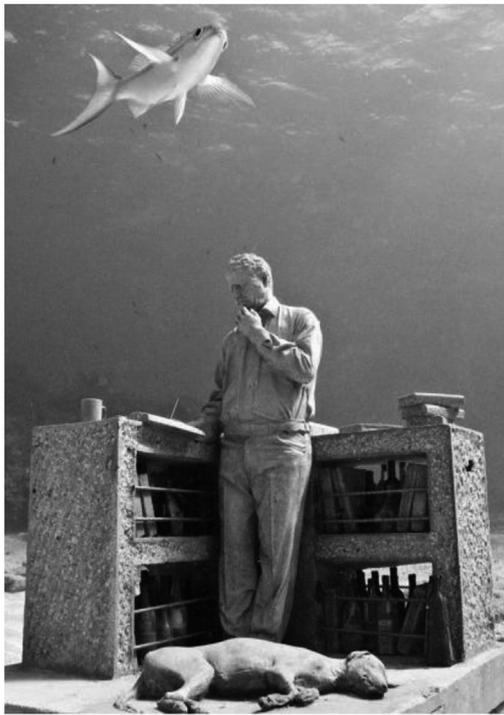
- Vadehavet (바덴해) (람사르습지 No.356)

- 제이슨 테일러의 카리브 해저박물관



<해저 조각박물관> 실물 크기의 400여점의 조각

멕시코 국립해양공원의 제이미 곤잘레스 카노, 칸쿤항해협회의 로버트디아즈와 영국의 조각가 제이슨 테일러가 공동 디자인한 것으로,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라진 고대 마야의 역사를 기념한다. 박물관의 이름은 '고요한 진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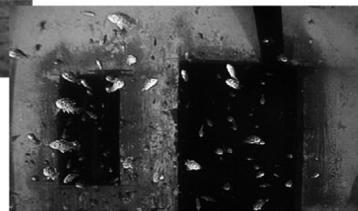
- 28 -

## 6. 바다목장

-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인공어초,해중림어초 등)을 시설하여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대량 방류와 인위적인 이동통제로 대상 해역의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이용관리체제를 적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어업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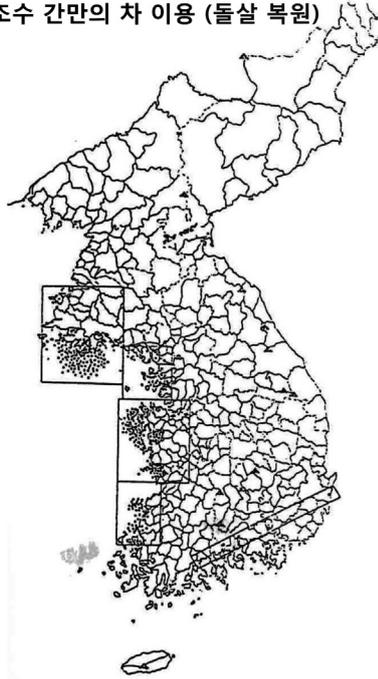
울진 앞바다; 침선되고 있는 3800t급, 81m의 퇴역 해군함정 속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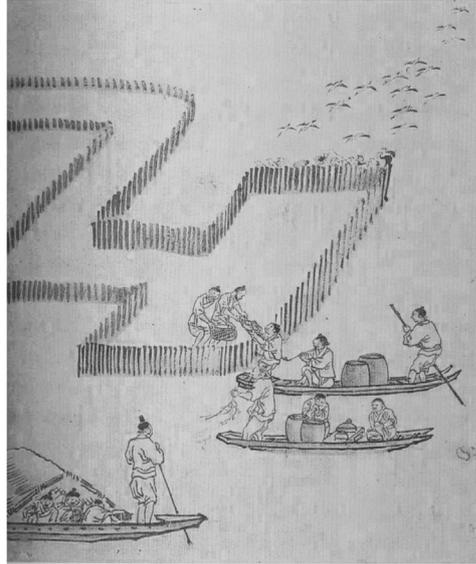
- 29 -

## 7. 독살

### - 조수 간만의 차 이용 (돌살 복원)



서해안 어살분포도 (세종실록지리지)참조, 김일기 작성



어살도 (단원 김홍도 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 <한반도의 돌살>

세계의 돌살이 일찍이 사라져가는 조건에서 어쩌면 한반도의 돌살은 세계 해양문화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어져 왔다. **태안반도의 돌살군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한반도 최대의 돌살군이며, 여타 나라에서 이만큼 조밀하게 돌살이 밀집된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최적의 조건에서 돌살들이 이어져왔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원 고갈로 서서히 퇴장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래 산업화의 결과로 거의 사라지고 겨우 몇 군데서만 생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살이 생업에서 퇴장한 역사가 불과 수십 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구술채록도 가능하여 적어도 누가 운영했던 돌살인지 규명할 수 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라, 한국의 돌살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소중한 세계 어업 문화유산인 셈이다.

하지만 육지 중심 사고에 젖은채 해양 문화유산에 대해 무지한 현 시대의 경향들로 인해 이 소중한 유산이 다소 간과되어 왔다. 그나마 전해오던 몽산리 굴업돌살의 경우는 그것을 지켜오던 김의배옹이 2004년 사망하였다. 다행히 다시 돌살의 가치를 인식한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안면도 빛개돌살과 같은 곳은 1999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매스컴의 돌살에 관한 관심을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체험형 돌살' 프로그램을 관광 차원에서 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해양 중심 사고로 전환하고 우리의 소중한 해양문화유산을 보존 개발해야 할 때이다.

'돌살' 神이 내린 황금그물, 주강현 지음 P 52~53 참고



자은도 한운리의 돌살들, 2001.7.25 찍은 사진

## 8. 해안사구

###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遠北面) 신두리에 있는 사구. 2001년 1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다. 이 사구는 태안반도 북서부의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규모는 해변(海邊)을 따라 길이 약 3.4km, 너비 500m~1.3km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북쪽 지역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신두리 해안의 만입부에 있는 사빈(砂濱)의 배후를 따라 분포하는데,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신두리 해안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건조 때가 되면 넓은 모래개펄과 해변이 노출된다. 모래가 바람에 의해 개펄과 해변에서 육지로 이동되어 사구가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해안사구는 해류에 의해 사빈으로 운반된 모래가 파랑(波浪)으로 밀려 올려지고, 그곳에서 같은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불어오는 탁월풍(卓越風)의 작용을 받아 모래가 낮은 구릉 모양으로 쌓여서 형성된 퇴적지형이다. 해안사구는 모래 공급량과 풍속풍향, 식물의 특성, 주변의 지형, 기후 등의 요인에 따라 형성과 크기가 결정된다.

해안사구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의 양을 조절하여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하며,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공급하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연출한다.

독특한 지형과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고, 모래언덕의 바람자국 등 사막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과 해당화 군락, 조류의 산란장소 등으로 경관적·생태학적 가치가 높으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 32 -

## 9. 결론

황해는 동양의 지중해이다.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모두 우리의 황해권이며 대련, 천타오, 상하이, 제주도, 평양 등을 연결하는 해상로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충청남도가 교역의 요충이자 관광지로서의 잠재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서해와 금강(金江), 호남평야와 산지 등의 천혜의 자연 환경적 혜택 가운데 있는 충청남도는 자연적 생태적 보고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 충청남도의 천리포 수목원이 모든 물고기의 산란지라는 점을 볼 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모든 유기적 곡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서해의 해안선은 그 곡선들의 집합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 문명에 깃든 과도한 인간 중심적 사고는 강과 길을 직선화하도록 하였고, 물길을 막고 관리하면서 물을 죽이고 급기야는 물을 장애물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개발들로 인해 인간은 속도에 있어서 승리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발전은 기존의 것을 보존하면서 어우러짐으로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에 있어,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서해와 금강이라는 지리적 특혜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백제 전통이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다. 천 년의 세월이 흐른 충청남도는 이제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건립과 함께 바야흐로 '새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시점에 놓여 있다. 이제 충청남도에게 맡겨진 과업은 과연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곧 전통과 자연의 최적의 요소를 얼마나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있다. 이에 있어 유독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서해와 아름다운 금강의 '물'의 자연적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는가는 다가올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33 -

